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 미 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임 혜 인[†]

경기아동학대에방센터

본 연구에서는 내담아동과 치료자 총 98쌍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놀이치료자의 세부상담기술과 상담과정에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협력적 치료관계를 높게 지각하며, 세부상담기술이 높은 치료자와 아동은 긍정적 감정관계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 중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이 치료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높을수록 치료자는 아동이 치료에 협력적이라고 지각하며 과시적-도취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이 치료에 협력적이라고 지각한다. 또, 사교적-우호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은 부정적 감정관계를 높게 지각하였다. 셋째,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인 중 치료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부상담기술과 반항적-불신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즉, 치료상황에서 핵심 기술과 적절한 개입능력의 세부상담기술을 갖춘 치료자와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며 신뢰로운 성향이 높은 치료자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어려운 내담자와도 치료적 협력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어 : 아동심리치료, 놀이치료, 치료적 관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성향

[†] 교신저자 : 임혜인, 광주시 남구 월산 4동 933-4
E-mail : softlhi@naver.com

긍정적인 치료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심리치료에서 중요하며,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예견하는 요소로 간주된다(Brady et al., 1980; Rogers et al., 1967). 놀이를 통한 긍정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놀이치료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왜냐하면, 아동상담의 경우 아동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일은 거의 없으며, 언어적인 미숙으로 치료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놀이치료는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치료적 관계를 맺게 하는데 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아동을 무의식적으로 심리치료를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Bow, 1993). 놀이는 아동에게 흥미로우며 즐겁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담아동과 신뢰관계 및 치료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초기의 놀이치료 임상가들은 치료관계는 변화를 위한 주요한 매개체이고, 치료자와의 안정되고 신뢰로운 관계는 아동에게 감정의 해소와 통찰을 일으킨다(Rogers, 1959)고 하였다. 이 밖에도 놀이는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과 치료자간의 치료관계가 바탕이 되었을 때, 치료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치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김광웅, 1999; Landreth, 1991).

기존의 성인 심리치료에서는, 치료관계나 동맹, 상담협력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또 치료적 동맹을 예언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과 치료성과와의 관계나 치료자와 내담자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연구되어왔다. 반면에, 아동심리치료에서는 제한된 주제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치료적 동맹을 비롯

한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크게 내담자 변인과 치료자 변인, 그리고 부모 변인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내담자 변인에 관한 연구로는 내담아동의 성별, 연령, 형제수, 문제 행동별 등의 일반적 변인과 치료적 동맹을 살펴본 연구(강하영, 김광웅, 2003)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임진영, 2005)가 있으며, 한현주와 김광웅(2004) 아동이 지각한 치료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는 내담 아동의 인구조학적 변인 중 형제관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2005)는 내담아동의 부모와의 애착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는 내담아동의 특성 및 변인이 치료관계나 치료적 동맹 및 정서적 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치료자 변인에 관한 연구로는 치료자의 아동기 경험 및 전문적 경험과 치료적 동맹을 살펴본 연구(박지현, 2004)와 내담아동의 지각으로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자의 변인에 관한 연구(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2005), 그리고 상담자의 공감능력과 치료자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살펴본 연구(한현주, 2004; 오경미, 2004; Gladstein, 1977)가 있다. 세 번째로 부모상담의 실태나 만족도, 부모상담 내 치료자의 공감능력, 그리고 내담아동의 부모와 치료자의 동맹 등에 대한 연구(박현주, 김광웅, 2000; 오경미, 2004; 주선영, 2002; 최선미, 2003)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유대차원에서의 치료적 동맹연구에서 좀 더 다차원적인 치료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치료관계의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방은령, 최명선, 2004)와 아동과 치료자 그리고 부모와의 치료관계 및 치료성적을 살펴본 최명선(2005)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아동, 치료자, 부모의 변인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인데 대부분이 각각의 지각을 통한 결과로 지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들을 그 기점으로 하여 아동상담에서 치료관계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여러 차원의 하위변인들이 추출되어 다양한 치료관계 특성을 측정해내는 도구가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관계는 내담자와 치료자라는 두 사람이 맺어진 것으로 내담아동과 치료자가 갖고 있는 특성은 치료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제언점으로 제시되었듯이 보다 다양한 변인을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아동심리치료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놀이치료에서 아동의 놀이 자체가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치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과 치료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Moustakas, 1955; Landreth, 1991). 다시 말해, 성공적인 치료의 관건은 치료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놀이치료에 있어서 치료자의 자질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치료자가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이 자아를 찾고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갈 수도 있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놀이치료자는 아동을 대하기 전에 전문적인 치료자로서 성공적인 치료를 이끌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반 조건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양은실, 1998).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아동심리치료연구

자들은(신숙재·이영미·한정원, 2000; 유미숙, 1997; Axline, 1969; Landreth, 1991; Moustakas, 1995; O'connor, 1991; Schaefer & O'connor, 1983)은 치료적 관계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치료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치료성과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효과적인 치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놀이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문적 자질인 놀이치료 지식과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많은 경험과 인간적 자질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전문적 자질은 상담이라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 또는 기술을 의미하며, 인성적 자질은 치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과 같은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충기, 이재창,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로 언급된 여러 변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Gist, 1989; Martocchio, 1994). 따라서 개인의 사고과정과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수행과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상담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시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으로 특히 놀이치료 분야에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상담가의 자기효능감은 상담 장면에서 요구되는 세부상담기술, 상담과정, 어려운 내담자 다루기를 말하는데 세부상담기술이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능력과 더불어 시기 적절한 구체적인 개입능력을 말한다(홍수현, 2001). 또,

상담과정은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석 등을 말한다(홍수현, 2001). 마지막으로 어려운 내담자 다루기는 여러 내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운수, 2001).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는 상담 협력관계를 높일 수 있다(홍수현, 2001). 또한 상담과정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치료자일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불안을 잘 인식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역동을 잘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이운수(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에 있는 놀이치료자가 역전이 관리 능력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역전이 감정은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감정상태로 이것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치료성적을 가져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진바 있다(이소연, 2001). 즉, 상담과정에서의 전문적 자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은 치료적 관계와 치료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상담가의 인성적 자질의 하나로 치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과 같은 인간성과 관련 있는 상담가의 대인관계 성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대인관계 성향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심리적 지향성으로 여러 성격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된다(안범희, 1979). 심리치료에서 내담 아동과 놀이치료자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며, 치료 장면에서 변화

를 유발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내담 아동을 대하는 치료자의 성격 뿐만 아니라 정직함, 성실함과 같은 상담자의 태도가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Corey, 2001). 다시 말해 놀이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 품성 등의 인성적 자질과 내담 아동을 대하는 치료자의 태도, 인간관계 스타일 등의 대인관계 성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자의 특성에 대해 노안영(2002)은 건강한 성격, 인간관계 스타일,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정실(2001)의 연구에서 유능한 상담자의 특성으로, 개방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지 않고 친교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관계에 중요한 변인인 놀이치료자의 전문적 자질 및 인성적 자질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담아동과 치료자의 지각을 통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과거 치료적 동맹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들의 경우 정서적 유대 차원에서의 동맹에 그쳤으며 놀이치료자만의 지각을 통해 연구되었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관계 측정도구의 개발(방은평, 최명선, 2004)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놀이치료자의 심리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대인외적 특성인 대인관계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긍정적인 치료관계와 효과적인 치료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하위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놀이치료자와 내담

아동의 지각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놀이치료자의 자기 효능감은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놀이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은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은 놀이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놀이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내담아동들 중에서 만 6세 이상으로 3회기 이상의 치료회기를 마친 아동들과 그들의 치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세션을 3회기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동맹 연구에서 적어도 3회기 이후의 동

맹의 질이 치료성과와 관련있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입증된 것이다. 또, 아동의 자기보고식 치료관계 측정 을 위해 심각한 발달장애 아동,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동의 치료 관계를 측정할 시 질문지를 스스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나이 어린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 등의 성인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의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최소 식사과정 중에 있는 치료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단, 한 치료자당 한 명의 내담 아동으로 표집하여 중복되는 것을 통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아동상담소, 복지관 내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대학 부설 상담소 등에서 종사하는 놀이치료자 108명과 그들의 내담아동 108명을 표집하여 놀이치료자와 내담아동에게 각각 108부를 배포하였다. 이중 10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무성의한 답변을 제외한 98부가 모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먼저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사항을 보면, 응답자 98명이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만 29세 이하가 60.2%, 만 30세-39세 이하 34.7%, 만 40세 이상이 5.1%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76.5%, 기혼이 23.5%였다. 근무 기관은 전문 아동상담기관이 36.7%로 가장 많았고, 놀이치료 및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자는 총 32명이며 미취득자는 55명이었다. 놀이치료 관련 자격증 47.2% 중 놀이치료사 38.2%, 놀이치료 전문가 9%로 놀이치료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자는 25명이며, 상담심리관련 자격증 13.2% 중 상담심리사 9.1%, 상담심리전문가 4.1%였으며, 기타 자격증이 39.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훈련 경험을 살펴 보면, 개인수퍼비전 경험을 한 번도 받은 적

이 없다가 15.2%, 1-10회 13.3%, 11-50회 33.7%, 51-100회 24.5%, 101-300회 13.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수퍼비전 경험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42.9%, 1-10회 28.6%, 11-40회 24.5%, 41-200회 4.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내담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 98명 중 남아가 62.2%, 여아가 37.8%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만 6-8세가 35.8%, 만 9-11세 54.1%, 만 12-15세가 10.2%로 나타났다. 내담아동의 형제 구성은 외동이가 21.4%, 내담아동을 포함하여 둘인 경우 69.4%이며, 내담아동을 포함하여 셋인 경우는 9.2%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52%, 중간이 7.1%, 막내가 21.4%, 외동이 19.4%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유형은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가 21%, 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44.4%, 행동과 관련된 문제가 31.5%, 기타 3.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치료회기를 살펴보면 초기가 18.3%, 중기 67.4%, 말기가 14.3%였다.

측정도구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Larson과 동료들(1992)이 개발한 상담자 자기 평가 질문지(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COSE)를 국내의 홍수현(2001)이 번안한 것을 다시 이운수(2002)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수정, 보완된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은 세부상담 기술(microskills), 상담과정(counseling process),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dealing with client behavior),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능력(cultural competence)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 산출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세부상담기술이 .84, 상담과정이 .78,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가 .81로 나타났다.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Leary(1957)의 대인관계 행동 모형과 Krech(1962)등이 밝힌 대인적 반응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한 대인관계 성향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에 따른 점수가 높으면 점수를 받은 영역의 대인관계 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대인관계 성향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지배적-우월적 역할성향은 .68, 독립적-책임적 역할성향은 .62, 동정적-수용적 사회관계성향은 .64, 사교적-우호적 사회관계성향은 .74,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은 .79,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은 .77,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72이다.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인 중 신뢰도를 낮춰주는 문항인 '독립적-책임적 역할성향'의 3문항(3번, 18번, 45번 문항)은 제외시켰다.

치료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과 치료자간의 치료관계 측정도구는 방은령과 최명선(2004)이 국외의 아동의 치료관계 척도(Kronmueller, et al, 2003; Shirk & Saiz, 1992)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아동과 치료자용으로 나누어지며 하위영역이 치료적 협력관계, 그리고 긍정적 감정관계와 부정적 감정관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아동과 치료자간의 치료관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아동의 지각

에서 치료적 협력관계가 .79, 그리고 긍정적 감정관계 .62, 부정적 감정관계 .55이었고, 치료자 지각에서 치료적 협력관계가 .80, 그리고 긍정적 감정관계 .71, 부정적 감정관계 .54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 하위변인 중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부정적 감정관계’의 1문항(6번 문항)은 제외시켰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5년 9월 7일부터 10월 21까지 총 45일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아동상담소, 복지관 내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대학 부설 상담소 등에서 종사하는 놀이치료자 108명과 그들의 내담아동 108명을 표집하여 놀이치료자와 내담아동에게 각각 108부를 배포하였다. 이 중 10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무성의한 답변을 제외한 98부가 모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인 내담아동과 치료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 ‘치료관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의 놀이치료자의 자기 효능감이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3의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 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치료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내담아동과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놀이치료자의 세부상담기술($\beta=.35, p<.05$)과 상담과정($\beta=.3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놀이치료자의 세부상담기술과 상담과정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치료에 협력적이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놀이치료자의 반항적-불신적 성향($\beta=-.32, p<.0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반항적 불신적 성향($\beta=.33,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놀이치료자의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은 치료자에

표 1.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 설명변인의 중다회귀분석

설명변인	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			
	치료적 협력관계	긍정적 감정관계	부정적 감정관계	
	β	β	β	
자기효능감	세부상담기술	.35*	.14	-.03
	상담과정	.32*	.03	.04
	어려운 내담자 행동다루기	-.09	.01	-.22
모델적합도(F값)		11.25***	1.01	1.49
누적 R ²		.24	.00	.01
대인관계 성향	지배적-우월적	-.11	.06	.02
	독립적-책임적	-.07	.09	-.14
	동정적-수용적	.07	-.02	.01
	사교적-우호적	.05	-.10	.13
	경쟁적-공격적	.17	-.06	.15
	과시적-도취적	.02	-.05	-.20
	반항적-불신적	-.20	-.32*	.33*
	모델적합도(F값)		0.76	1.17
누적 R ²		.02	.01	.07

주. * $p < .05$

게 긍정적 감정을 많이 가지며,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높을수록 치료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진다.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놀이치료자의 자기 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치료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자의 지각으로 본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부상담기술($\beta = .32, p < .05$)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료자가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또한 세부상담 기술($\beta = .37, p < .05$)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자가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세부상담기술($\beta = -.55, p < .001$)로 나타났다. 즉, 세부상담기술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료자는 아동이

표 2.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 설명변인의 중다회귀분석

설명변인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			
	치료적 협력관계	긍정적 감정관계	부정적 감정관계	
	β	β	β	
자기효능감	세부상담기술	.32*	.37*	-.55***
	상담과정	.05	-.04	.09
	어려운 내담자 행동다루기	.18	.12	-.06
모델적합도(F값)		10.99***	6.85***	11.50***
누적 R ²		.24	.15	.25
대인관계 성향	지배적-우월적	.07	-.10	.17
	독립적-책임적	.04	.29**	.09
	동정적-수용적	.07	-.01	-.03
	사교적-우호적	.05	.04	-.29*
	경쟁적-공격적	.35*	.26	-.19
	과시적-도취적	-.29*	-.06	.14
	반항적-불신적	-.22	-.42**	.02
	모델적합도(F값)		1.72	2.82**
누적 R ²		.05	.12	.07

주. * $p < .05$, ** $p < .01$, *** $p < .001$

치료에 협력적이라고 지각하며, 내담아동이 치료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며 부정적 감정은 적게 가진다고 지각한다.

다음으로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경쟁적-공격적 성향($\beta = .35, p < .05$), 과시적-도취적 성향($\beta = -.29,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치료자의 대인관계 성향 중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높을수록 치료자는 아동이 치료에 협력적이라고 지각한다. 그리고 치료자의 과시적-도취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이 치료에 협력적이라고 지각한다. 치료자가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적-책임적 성향($\beta = .29, p < .01$),

반항적-불신적 성향($\beta = -.42,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치료자의 독립적-책임적 성향이 높을수록 치료자는 아동이 긍정적 감정을 많이 가진다고 느끼며,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내담아동이 치료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많이 가진다고 지각한다. 치료자가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에 있어서는 사교적-우호적 성향($\beta = -.29, p < .05$)이 낮을수록 치료자는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진다고 지각한다.

치료관계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의 상대적 영향력

다음은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의 하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치료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을 살펴보면, 치료관계의 하위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놀이치료자 하위변인은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치료적 협력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변인은 자기효능감 중 세부상담기술($\beta=.41, p<.01$)이었다. 즉, 치료상황에서 핵심적인 기술과 적절하고 민감한 개입능력의 세부상담기술이 아동이 지각하는 치료적 협력관

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변인은 자기효능감 중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beta=-.10, p<.05$)와 대인관계 성향 중 반항적-불신적 성향($\beta=-.30, p<.05$)이었다. 긍정적 감정관계란 아동이 치료자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치료시간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등 치료자와 긍정적인 감정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미한다. 어려운 내담자란 일반적으로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거나 심리적으로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의미한다(강혜영, 1995). 그러므로 치료자가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아동들의 다양한 문제와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나

표 3.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 하위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하위변인	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			
	치료적 협력관계 β	긍정적 감정관계 β	부정적 감정관계 β	
자기효능감	세부상담기술	.41**	.17	-.11*
	상담과정	.25	.09	.01
	어려운 내담자 행동다루기	-.14	-.10*	-.11
대인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	-.12	.06	.03
	독립적-책임적	-.11	.08	-.12
	동정적-수용적	.00	-.04	.04
	사교적-우호적	-.07	-.14	.16
	경쟁적-공격적	.06	-.10	.18
	과시적-도취적	.15	-.00	-.26*
	반항적-불신적	-.15	-.30*	.28*
모델적합도(F값)	3.73***	1.12	1.76	
누적 R ²	.22	.01	.07	

주. * $p<.05$, ** $p<.01$, *** $p<.001$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은 아동 등을 다룰 수 있으므로 내담아동과 긍정적 감정관계를 맺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인관계 성향 중에서는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이고 타협적이며 신뢰로운 성향이 높은 놀이치료자가 아동에게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어려운 내담자와도 긍정적 협력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변인은 자기효능감 중 역시 세부상담기술($\beta = -.11, p < .05$)이었으며, 대인관계 성향 중 과시적-도취적 성향($\beta = -.26, p < .05$)과 반항적-불신적 성향($\beta = .28, p < .05$)이었다. 그 중 과시적

도취적 성향은 문항별 의미를 살펴볼 때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고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향의 치료자에게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중 세부상담기술($\beta = .30, p < .05$)과 대인관계 성향 중 경쟁적-공격적 성향($\beta = .28, p < .05$)이었다. 이 중 세부상담기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지각으로 본 치료적 협력관계

표 4.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 하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하위변인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		
		치료적 협력관계 β	긍정적 감정관계 β	부정적 감정관계 β
자기효능감	세부상담기술	.30*	.32*	-.52***
	상담과정	.05	.01	.10
	어려운 내담자 행동다루기	.19	.03	-.08
대인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	.05	-.11	.18
	독립적-책임적	.01	.23*	.13
	동정적-수용적	.01	-.05	.03
	사교적-우호적	-.04	-.03	-.18
	경쟁적-공격적	.28*	.20	-.10
	과시적-도취적	-.17	.04	-.01
	반항적-불신적	-.10	-.36**	-.06
	모델적합도(F값)	3.80***	3.38***	4.26***
	누적 R ²	.22	.20	.25

주. * $p < .05$, ** $p < .01$, *** $p < .001$

와 마찬가지로 세부상담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치료자는 아동이 치료에 협력적이라고 지각한다.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치료자 자신의 성취지향적 성향이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치료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놀이치료자의 변인 중 치료자가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에 대해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중 역시 세부상담기술($\beta=.32, p<.05$)과 대인관계 성향 중 독립적-책임적 성향($\beta=.23, p<.05$)과 반항적-불신적 성향($\beta=-.36, p<.01$)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은 반항적-불신적 성향으로 놀이치료자의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긍정적 감정관계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자가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중 세부상담기술($\beta=-.52, p<.001$)로 나타났으며, 세부상담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자에게 아동은 부정적 감정을 적게 갖는다.

논 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치료관계이며, 치료자와 내담자가 치료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심리치료는 시작될 수조차 없다. 또한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며, 치료장면에서 변화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왜냐하면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성격

뿐만 아니라 정직함, 성실함과 같은 상담자의 태도는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심리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대인외적 특성인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인 중 치료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개인적 변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내담아동 및 치료자가 지각한 각각의 치료관계의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치료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성 및 자질과 태도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는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중 세부상담기술과 상담과정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놀이치료자의 시기적절한 개입과 반응, 감정의 해석 등이 아동과의 치료적 협력관계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료자의 수퍼비전과 개인분석 경험이 많을수록 내담아동이 높은 치료적 협력관계를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박지현, 2004; 김광웅, 최명신, 한현주, 2005; Hogan, 1964;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3)와 간접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 심리치료에서 내담자가 지각하는 협력관계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전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선행연구(홍수현, 2001) 결과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내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한 속성과 관련시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상담의 놀이치료자는 언어적 방법이 아닌 아동의 놀이행동 속에 있는 심리치료적 요소

를 활용하여 민감하게 아동의 행동에 반응하고 집중하며 감정을 반영해주어 아동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돌봄의 역할을 통해서 성인 심리치료에서보다 내담아동의 정신역동을 개념화할 수 있는 치료자의 세부상담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 긍정적 감정관계, 부정적 감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두 세부상담기술로 이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능성, 문제해결 평가, 수행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Friedlander et al., 1986; Sipps, Sugden & Faiver, 1988; Ridgway & Sharpley, 1990; Larson et al., 1992)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치료관계의 하위변인별로 내담아동의 지각에 비해 상담자의 지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본 연구가 치료관계를 치료자의 개인적 변인과 관련시켜 살펴본 것 때문에 치료자의 주관적 평가가 높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으며, 선행연구(홍수현, 2001)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상담 장면에서 치료관계에 있어서 치료자가 내담아동보다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성인심리치료에서 치료동맹에 대한 내담자와 치료자의 지각 차이를 입증한 연구(강혜영, 1995; 신희천, 1995; Hovarth & Symonds, 1991; Mallinckrodt & Nelson, 1991)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김원영(1999)은 치료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기여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담장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은 상담자이므로 상담자가 작업동맹을 제대로 지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 중 긍정적 감정관계, 부정적 감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놀이치료자의 반항적-불신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놀이치료자의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공감을 잘하며, 내담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김경옥(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높은 치료자는 내담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며, 긍정적인 감정을 맺기 어렵다는 결과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가식이나 왜곡, 불신적인 태도가 아닌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Rogers(1977)의 주장과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는 경쟁적-공격적 성향, 과시적-도취적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자가 경쟁적-공격적 성향, 과시적-도취적 성향이 높을수록 치료자 지각으로부터 아동이 치료에 협력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경옥(2003)의 연구에서 치료자의 과시적-도취적 성향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에 하나인 자기통찰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낮을수록 불안관리 능력이 높아 역전이 관리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옥, 2003)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료자가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는 독립적-책임적 성향,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료자의 독립적-책임적 성향이 높을수록 치료자 지각으로부터 아동이 긍정적 감정을 많이 가지며,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이 치료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

을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자가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는 사교적-우호적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자가 사교적-우호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진다는 의미이다. 위의 두 연구 결과를 함께 묶어 볼 때, 효과적인 상담자의 특성에 대해서 건강한 성격, 인간관계 스타일,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노안영(2002)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정설(2001)의 연구에서 유능한 상담자의 특성으로, 개방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지 않고 친교성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상담과정이 대인관계라는 큰 맥락에서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성공적 상담의 열쇠로 상담자의 대인관계 성향과 인격적 자질 및 태도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치료자의 하위변인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세부 상담기술에 대해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은 치료자와 긍정적 치료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능력과 더불어 시기적절한 구체적인 개입능력의 세부상담기술이 뛰어난 치료자가 치료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자기효능감이 상담협력관계와 상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 또한 상담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징으로 상담경험이 많고, 수퍼비전에 꾸준히 참가함으로써 사례를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이해하고 여러 상담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상담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밝힌 조도현, 윤효

균(1998)의 연구결과와 간접적으로 일치한다. 치료자의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치료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치료관계를 위해서 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인격적 성숙을 제안한 여러 놀이치료 이론가들(신숙재 · 이영미 · 한정원, 2000; 유미숙, 1997; Axline, 1969; Landreath, 1991; O'connor, 1991; Schaefer & O'connor, 1983)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종합하여 볼 때,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 치료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심리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되어온 내담자가 지각한 치료적 동맹을 놀이치료에서 내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아동상담에서의 치료관계는 성인인 치료자의 지각을 통해 치료적 동맹이나 유대를 측정함에 있어 아동이나 치료자 중 한쪽 집단의 자료만을 사용해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내담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관계 측정도구의 개발(방은령, 최명선, 2004)로 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성인 치료자가, 아동을 대신하여 제공한 자료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 변인에 따른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와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치료자나 아동 측면에서만 보았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치료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직접 평가하고 이를 치료자의 지각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Kendall & Moriss, 1991).

셋째, 놀이치료에서 아동과 직접 치료관계를 맺는 치료자의 심리내적, 대인외적 변인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치료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자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기효능감 중 세부상당기술과 대인관계 성향 중 반항적-불신적 성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치료관계 형성에 필요한 치료자의 특성과 상담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변인에 따른 내담아동과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연구결과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 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내담아동과 치료자의 지각의 차이가 상담이론과 실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의 변인에 따른 치료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치료관계는 치료자 변인 뿐만 아니라 내담자 변인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똑같은 치료자라도 내담자에 따라서 치료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담자 특성과 심리내적 변인에 따른 치료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이 어려운 관계로 아동과 치료자 총 98쌍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놀이치료 상황에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더 많은 사례를 수집, 분석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치료회기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대상인 치료자와 아동을 모집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치료회기별 치료관계 지각의 차이를 밝히지는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초기, 중기, 말기 별로 회기를 제한하여 특정회기 내에서 치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치료관계를 측정할 시 질문지를 스스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나 이 어린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 등의 성인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방법을 구성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하영, 김광웅 (2003) 놀이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아동 변인 연구. *놀이치료연구*, 5(2), 15-26.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옥 (2003). 놀이치료자의 자아강도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웅 (1999). 아동놀이의 속성과 치료적 요소에 관한 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연구*, 2, 49-57.
- 김원영(1999). 상담자의 귀인편향과 발달수준

- 에 따른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 지각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충기, 이재창 (역) (1985). 상담과 심리치료 : 이론, 과정,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노안영 (2002). 101가지 주제로 알아보는 상담 심리. 서울: 학지사.
- 박지현 (2004). 놀이치료자의 아동기경험과 전문적 경험이 치료자의 치료적 동맹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주, 김광웅 (2000). 놀이치료 현황 및 놀이치료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도와 상담만족도 연구. 놀이치료연구, 3(2), 11-21.
- 방은령, 최명선 (2004). 아동과 치료자간의 치료관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01-121..
- 신숙재, 이영미, 한정원 (2000). 아동중심놀이치료. 서울: 동서문화원.
- 신희천 (1995).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상호작용 패턴과 작업동맹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범희 (1979). 대인관계이론고찰, 원우논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63-85.
- 안범희 (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은실 (1998). 놀이치료자의 놀이성과 경력, 태도, 지식, 기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미 (2004). 놀이치료자의 공감능력과 내담아동 어머니의 상담자 평가 및 부모상담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미숙 (1997).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상조사.
- 윤정설 (2001). 상담자의 성격 특성 및 경력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연 (2001). 놀이치료자의 아동기 경험이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한 역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수 (200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진영 (2005). 놀이치료 대상 아동의 개인적 변인 및 자아탄력성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주 (2005). 내담아동의 부모와의 애착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선영 (2002).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현황 및 부모상담에 대한 상담자, 부모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도현, 윤효균 (1998). 상담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특징들. 사회과학 연구, 14, 29-55.
- 최명선 (2005). 놀이치료의 치료관계와 치료성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2005). 치료자의 전문적 경험과 공감능력이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7(3), 503-521.
- 최선미 (2003).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내상관계 수준과 치료적 동맹.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현주 (2004). 놀이치료자의 공감능력과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자와의 정서적 유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현주, 김광웅 (2004) 놀이치료자의 공감능력과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자의 정서적 유대. *놀이치료연구*, 7(1·2), 77-89.
- 홍수현 (2001). 상담초기단계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xline, V. (1969). *Play therapy (rev. ed.)*, New York: Ballantine.
- Bordin, E. S. (1980, June). *Of human bonds that bonds or fre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Society for the Exploration of Psychotherapy Research, Pacific Grove, CA.
- Bow, J. N. (1993). *Overcoming resistance*. In C. E. Schaefer(Ed.), *Therapeutic power of play*, Northvale, New Jersey: Jason Aronson..
- Brady, J. P., Davison, G. C., & Dewald, P. A., et al. (1980). some views on effective principles of psychotherap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269-306.
- Corey G. (2001). *The Art of Integrative Counseling*. Thomson Learning.
- Friedlander, M. L., Keller, K. E., Peca-Baker, T. A. & Olk, M. E (1986). Effects of role conflict in counselor trainees self-estimate, anxiety level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56-364.
- Gist, M. E. (1989). The influence of training method on self-efficacy and idea generation among managers. *Personal Psychology*, 42, 787-805.
- Gladstein, G. A. (1977). Empathy and counseling outcome: An empirical and conceptual re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4), 70-79.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Kendall, P., & Moriss, R. (1991). Child therapy: Issu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777-784.
- Krech, D., et al.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L.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05-120.
- Landreth, G. (1991). *Play therapy - The art of relationship*, Texas: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3).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Mallo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rtocchio, J. J. (1994). Effects of conceptions of

-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6), 819-825.
- Moustakas, C. E., & Schalock, H. D. (1955). An analysis of therapist child interaction in play therapy. *Child Development*, 26, 143-157
- O'Connor, K. (1991). *The Play Therapy Primer: An Integration of Theories and Techniques*, John Wiley & Sons, Inc.
- Ridgway, I. R. & Sharpley, C. F. (1990). Multiple measures for the prediction of counselor trainee effectivenes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4, 65-177.
-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2. New York: McGraw-Hill.
- Rogers, C. (1977).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Inner strength and its revolutionary impact*. New York: Delacorte Press.
- Rogers, C. R., Gendlin, G. T., Kiesler, D. V., & Truax, C. B. (1967).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Impact: A Study of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c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chaefer, C., & O'Connor, K. (1983). *Handbook of play therapy*, New York: Wiley.
- Shirk, S. R., & Saiz, C. C. (1992). Clinical, empi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child psychotherapy. Special Issue: Developmental approaches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4), 713-728.
- Sipps, G. J., Sugden, G. J., & Faiver, C. M. (1988).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verbal response type: Their relationship to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97-401.
- Kronmüller, K.-T., Hartmann, M, Reck, C., Victor, D., Horn, H., & Winkelmann, K. (2003). Die therapeutische Beziehung in der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ie: Evaluation einer deutschen Version der Therapeutic Alliance Scales for Children. *Zeitschrift für Klinische Psychologie und Psychotherapie.*, 32(1), 14-23.

원 고 접 수 일 : 2005. 11.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6. 4. 5

게 재 결 정 일 : 2006. 5. 2

The Effect of th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the Play Therapist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s in the Play Therapy

Mi-Sook You

Hye-In L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the play therapist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s in the play therapy perceived by children and play therapist. Research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98 pairs of play therapists and child clients. We found that the higher levels of play therapist's self-efficacy in using micro-skills and in processing therapy process, the higher level of therapy relationship was perceived. Also, the lower level of resistant-distrustful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the therapists showed, the higher level of clients' positive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ir therapist was found. Finally, with play therapists who has lower competitive-aggressive, ostentation-intox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the child clients showed to have lower level of therapeutic helping relationship. Therapist's self-efficacy in using micro-skills and their resistant-distrustful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were found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on therapeutic relationship.

Key words : child psychotherapy, playtherapy, therapeutic relationship, self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s*